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성중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무: 참여연대 / 찬반만나유누리 go PSPD / 전자우편: pspd@pspd.org / 인터넷: www.pspd.org

수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한재각: 723-4255 hancl@pspd.org)  
제목 (월례토론회) WTO 시애틀 NGO 투쟁을 말한다  
날짜 2000. 1. 25 (총 2 쪽)

## 보도 협조 요청서

### (월례토론회) WTO 시애틀 NGO 투쟁을 말한다.

일시 및 장소: 2000년 1월 29일(토) 오후 3시 / 2층 참여연대 강당

1.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 국민대 교수)가 지난 해 11월 말에 시애틀에서 있었던 WTO회의에 반대하는 NGO 투쟁에 대해서 참가자인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발표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의 새천년은 낙천·낙선운동으로 열렸다면, 전세계의 새천년은 1999년 말 시애틀에서 모인 수많은 NGO 회원들이 감행한 WTO 반대시위에 의해서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무역의 횡포에 반대하는 전세계 환경, 인권, 노동단체의 회원들의 시위로 말미암아, 국제 회담의 역사상 처음으로 회의 진행이 연기되고 결국은 실패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세계화의 과정속에서 WTO라는 초국적 기구와 전세계 NGO의 대결이 새천년의 주요한 구도가 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특히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21세기의 주요한 사회적 갈등이 과학기술과 관련될 것이라는 점이 이번 시애틀의 WTO 투쟁을 통해서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WTO 회담에서 유전자조작식품이나 생명특허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이용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제3세계, 초국적기업과 시민사회가 첨예한 대립을 하였던 것입니다.
4. 이에 시민과학센터는 21세기 시민사회운동의 전망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

이 월례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 음

1. 일시 및 장소 : 2000년 1월 29일 오후 3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2. 주제 : WTO 시애틀 NGO 투쟁의 의미
3. 발표자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4. 기타 : 슬라이드 상영

끝